

주일 1부 예배

마음을 정한 자 (시편 108:1-13)

▶ 이번 주간 중요한 훈련이 있을 것이다. 참 중요한 시간이다. 훈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먼저 눈을 여는 시간이다. 우리가 일천 번제를 선언하고 거의 2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. 600회에 가까이 가고 있으니 알게 모르게 많은 세월이 흘렀다. 우리는 나를 위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 고백을 듣고 미국의 흑암 세력을 꺾으실 수도 있고 정말로 남미 끝까지 가실 수도 있다. 1천번제 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사명을 가지고 하시기를 바란다.

▶ 내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에 내 눈이 맞춰지는 것이 바로 눈을 뗀다고 하는 것이다.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. 그러나 그것은 기본이다. 이제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에 눈이 맞춰지는 이 눈이 열려야 한다. 그래야 하나님이 우릴 이끌어 가신다. 이러한 중에 우리는 많은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이 일어날 것이다.

갈라디아서 6:9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 하지 않으면 이루리라.

▶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잡고 가야 할 1번이 무엇인가?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다. 이것은 영원히 끝까지 놓으면 안 되는 것이다. 되든 안되든 이것은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이다.

1.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라.

▶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자는 응답을 받을 것이다. 그러면 자연스럽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 비밀이 더 깊어진다. 더 많은 증거를 보게 되는 것.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정해야 한다.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찬양을 받아주실 것이다. 너무나 중요한 출발이다. 여기서 출발되지 않은 인생은 전부 옆길로 갈 수 밖에 없다. 그래서 어려운 것이다.

▶ 우리는 저주를 뒤집어서 전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꿀 수도 있다. 그래서 이 땅에서 왕노릇 하고 정복하는 것이다. 그리고 문제가 즐거울 수도 있다. 대부분 문제에 눌려서 꼼짝을 못하기 때문에 늘 문제가 안 오기를 바란다. 그러나 답 나면 문제를 오히려 정복하게 된다. 다시 한번 그리스도에 답 나는 순간이 되기 때문이다.

시편 108:1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

▶ 다윗이 마음을 정하였다. “내가 이것을 확정했습니다. 내 온 마음을 쏟아놓겠습니다.” 많은 힘과 은혜를 받았을 것이고 영원한 일들이

일어났을 것이다. 우리는 세상에 마음 둘 곳이 많다. 또 필요해 보이는 것도 많이 있다.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재치고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정해야 한다. 이게 지혜이다. 그러면 하나님이 출발하신다. 그 전까지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이다. 확정하면 놀라운 출발이 시작되는 것이다. 이 출발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 할 것이다. 우리가 왜 하나님께 마음을 정해야 하는가?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다. 우리의 운명을 해결할 길은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이다. 이 길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사단의 역사를 깨겠는가? 이 길이 아니고 어떻게 해방을 받게는가? 그러면 하나님이 출발하시고 끝까지 역사하신다. 출발하신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지 않는다. 그리고 그를 누리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며 증인되어 사람을 살리게 하신다.

▶ 복음으로 답을 내고 ,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것이다. 가정이 그러하면 가정에 증거를 주실 것이고 개인이 그렇게 하면 개인에게 주실 것이며 그 이후에는 이것이 파급되어 놀라운 영적 파장을 계속 일으키게 될 것이다. 그리고 이 복음의 문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열릴 것이며, 평생 죽을 때까지 갈 것이다.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고 마음을 하나님께 정한다면 그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다.

▶ 우리는 무슨 선택이 있을 때 항상 복음을 선택해야 한다. 하나님을 선택하고 거기에서 마음을 정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. 괜히 고생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.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세고 있는 창조주이시다. 그가 한 모든 것이 필연이고 절대적인 것이다. 우연은 없다. 그에게는 영원히 변함이 없다. 변함이란 단어는 처음부터 해당이 안 되는 것이다.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.

시편 108:2- 4 비파야, 수금야, 팻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못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까지 이르나이다

▶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세계가 보이는 것이다. 이 은혜가 지속이 되면 영적인 summit이 되고 이 영적 summit을 통해 기능 summit, 세상 summit이 되는 것이다.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. 사단은 이미 저 멀리 가고 없을 것이다. 그래서 우리는 성경처럼 사는 것. 이것은 공중에 뜬 이야기가 아니다. 실제로 응답 받고 승리하고 흑암세력 박살내고 세계 복음화 하는 것이다. 되여지는 인생, 사람 살리는 가치 있는 인생, 남미 끝까지 가고 세계 복음화 하는 것이다. 속으면 안 된다. 이 놀라운 은혜가 언약 잡은 자에게 약속 되어있다.

2. 준비하신 것

▶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준비되어 있다.

시편 108:7-9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뭇을 나누며 속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

▶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.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이다.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심판도 가지고 계시다. 두 개를 동시에 알아야 한다. 심판을 이야기 하면 겁내는 분이 있는데, 이 잔인한 심판에서 우리가 나온 것이다.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사단에게 준비 되어있는 심판이다. 지옥에 가면 너무나 괴로워서 소리를 지르는데 듣고 있으면 귀가 터질 것 같다고 했다.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. 왜?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정했으니까.

시편 108:13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

▶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것이니 주눅 들지 말고 용감하게 살라. 우리가 무엇을 인간적으로 잘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. 영적으로 담 샀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잘 하는 것이다. 절대 세상 사람들에게 주눅들 이유가 없다. 차르니 죽으면 죽는 것이다. 돈에 주눅들지 말라. 우리는 돈을 정복해야 할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. 만약 문제가 있다면 무엇을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이 있다고 보면 된다. 예를 들어 왜 내게 마음을 정하지 않는가?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모든 것이 역전되어 축복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니가 축복 될 것이 오히려 짐이 되고 있는 것

▶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준비되어있다. 그래서 우리는 속으면 안 된다. 사단은 기를 쓰고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.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무릎을 꿇게 한다. 진짜 놀라운 일은 사단이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것. 그래서 사단이 우리보다 항상 더 앞서 행한다. 뭘 하려고 가보면 사단이 이미 와있다. 이것을 막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것이니까.

▶ 살다보면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. 그 때 또 속으면 안 된다. 그 때 또 우리에게 손해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. 현재는 축복이고 그것은 미래의 답이 될 것이다. 항상 그렇다. 그리고 무조건 그렇다. 왜? 하나님이시기 때문에. 누가 막고 누가 뒤집을 것인가?

▶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다. 그의 피로 인하여 무조건 역전인 것이다. 안 좋은 일이란 없을 것이다. 언약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. 우리를 위하여 대적을 밟고 블레셋을 향하여 외칠 것이라고 했다. 너희는 똑똑히 보라. 내 자녀들을! 세뭇을 나누며 속곳을 측량 하실 것이라고 했다. 그리고 에돔에는 신발을 벗어던질 것이고 모압은 우리의 목욕탕이 될 것이라고 했다. 그러나 너는 다윗처럼 네 마음을 정하라.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라.

2017년 8월 20일 임마누엘 남가주교의 주간메시지

일 2부 예배 (임마누엘 1부)

틀린 종교, 틀린 주인, 틀린 집중(창12:1-4)

◆서론

▶빈틈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라고 들었을 것이다. 그런데 어느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난데없는 어려운 일을 명령하셨다.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고 하셨다.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!

▶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이유가 다섯가지가 있다. 앞으로 네 후대, 가정, 주위에 재앙이 임할 것이니까 이 땅을 떠나라. 재앙이 들어닥칠 시대가 올 것이니까 나오라. 이렇게 완전히 음란과 마약과 중독시대가 되었으니까 거기서 나오라. 정신질환자들이 막 일어나서 전쟁을 일으키고 난리가 난다.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모든 것을 버리고 나가라.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예배이다.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있지 않으면, 하나님의 말씀속에 있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.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야 한다.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세가지 이유가 있다.

1.과거의 배경에서 나오라!

- 1)사탄이 만든 창3장, 6장, 11장의 함정에서 나오라.
 - 2)인간을 조용히 죽이기 위해서 사탄이 만들어 놓은 틀에서 빠져나오라.(행13장, 16장, 19장의 문화)
 - 3)여러분을 죽이려고 완전히 울무를 걸었는데 지금이 기회니까 빠져나오라.
- ▶여러분이 언약만 붙잡으면 역사 일어난다. 언약 붙잡고 일어난 증인이다. 거짓말 듣지 말고 언약 잡으라.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. 사람 말 듣지 말라.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성취하고 계신다.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할 수 있다. 지금도 구원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.

2.지금 임할 재앙에서 떠나라!

▶과거의 배경에서 나오고, 지금 곧 임하는 재앙에서 떠나라.

- 1)틀린 종교-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. 문제는 엄청 영적 문제가 온다. 창6장 사탄에게 잡혀 버린

- 다.
 - 2)틀린 주인- 사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.
 - 3)틀린 집중- 평생 틀린 집중을 한다. 성공한다고 몸부림친 것이 바벨탑이었다.
- ▶실패할 수밖에 없으니까 수행이 필요없다. 지금 당장 나오는 것이다.

3.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라!

- ▶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으로 가라고 하는데 미래에 대한 대비이다.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!
- 1)갈대아를 떠날 이유를 설명해주셨다.
 - 2)2절에 너는 복(복의 근원)이 될지라!
 - 3)3절,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., 세계복음화에 대한 약속이다.

◆결론

▶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응답이다.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답을 주었다. 인간의 12가지 문제를 놓고 한번만 기도해도 상대방에게 답을 줄 수 있다. 답을 주면 답준 사람을 따라오게 되어있다. 이제 하나님의 새 방법을 써라.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답을 얻는 것이다. 이 시간부터 응답을 찾는 중요한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

(임마누엘 2부)

땅끝 (행1:8)

(양해의 말씀) 개인 사정으로 요약본을 먼저 올려드리고, 주일2부 요약 메시지는 저녁에 재정리해서 올려놓겠습니다.

◆서론- 먼저 알 것

- 1)기도 24
 - (1)아침(시5:3)
 - (2)낮(시23:1-6)
 - (3)밤(시17:3)

- 2)배경 3가지
 - (1)성삼위 하나님
 - (2)천국
 - (3)권세
- 3)예배의 힘 5가지
 - (1)깊은 감사
 - (2)깊은 말씀
 - (3)깊은 기도(집중)
 - (4)깊은 치유
 - (5)깊은 미래

◆본론- 응답의 키(key)

1.복음의 천명→ 62가지

2.이 시대의 땅끝→ 237개 나라

3.나의 땅끝

- 1)오직(행1:1)
- 2)유일성(행1:3)
- 3)재창조(행1:8)

◆결론- 보좌에 상달

- 1)기도
- 2)전도
- 3)헌금